

교회 간판 논쟁 결과 Church Sign Consequences

2010년 5월 25일 - 메디슨 지역 WBBJ 뉴스

미국 테너씨 주 맥나리 행정구에 있는 창조 SDA 교회 자체가 바로 미국 국가법의 반대 편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이스 지역에 있는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지도자가 오늘 미합중국 재판관 앞에 서서, 미합중국의 법정 명령들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그 교회 목사와 부목사가 벌금을 물거나 교도소에 구치까지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고 하였다. 가이스 지역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부목사 누칸 차알티어가 오늘 미합중국 법정 재판관 앞에 서서, 법정 명령들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였다. 차알티어가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념이기 때문에, 내가 단행한 것을 부인하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고 하였다.

지난 2월에 재판관의 명령으로 미 연방 정부 법정 보안관들이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름을 건물에서 떼어내었다. 법정이 국제적인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지지하여 판결한 것은, 가이스에 있는 창조 SDA 교회가 SDA 교회 단체의 등록상표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고 말하였다.

지난 3월에, 가이스에 있는 창조 SDA 교회가 법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위에 교회 이름을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기록하여 놓았다. 차알티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단행한 것 뿐이다.” 고 하였다. 또 그가 말하기를, 내 신앙심이 지시한대로 계속 행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고 하였다.

창조 SDA 교회 목사 월터 맥길과 (Walter McGill) 차알티어가 고의로 법정 명령을 불순종하고 법정 질의들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감금될 입장에 직면하였다. 맥길 목사의 변호사 척 할라테이가 말하기를, “법정이 그들을 교도소에 감금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조 SDA 목사와 차알티어가 법정 명령에 순종하고 법정 질의에 응답하면 언제든지 교도소에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하였다.

국제적인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조직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변론을 마친 후에 말하기를, “이 소송 사건은 재판소의 수중에 있다.” 고 하였다.

창조 SDA 멤버 차알티어가 벌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으므로, 법정이 그를 법정 모욕죄로 감옥에 넣기로 결정하면, 그가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다. 고 하였다. 차알티어가 말하기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복음이 아니라면, 내 생명의 가치의 중요성이 전혀 없다.” 고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법정 명령에 불복종한 교회 멤버들에게 법정 처벌 발포가 여러 날 후에 있을 수 있고 또는 몇 주일 후에 있을 수 있으며, 또는 몇 달 후에 있을 수 있다. 고 하였다

05/25/10 - Madison County

Church Sign Consequences

By: Mallory Cooke

mcooke@wbbjtv.com

5:15 p.m.

One McNairy County church could find itself on the wrong side of the law. A leader of the Creation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in Guys stood before a federal judge Tuesday and admitted to violating federal court orders.

An attorney said the pastor and assistant pastor could both face fines or even prison time. Lucan Chartier, the assistant pastor of the church in Guys, stood before a federal judge Tuesday and admitted to violating court orders. "This is our conviction and if I deny that I have done what I have done, it is really no different than just changing my name," said Chartier.

Workers ripped down signs at A Creation Seventh Day and Adventist Church in February after a judge ordered it. Th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international Seventh Day Adventist organization, and said the Guys church violated that group's trademark.

In March, the church in Guys put the signs back up despite court orders. Chartier said it is because God told him to. He said, "I have no option except to continue doing what my religion dictates."

An attorney believes both Chartier and the church's pastor, Walter McGill, could face fines or time in prison for refusing to answer questions and deliberately disobeying court orders. "A court can put you in jail and essentially give you the keys to the jail house in your pocket," said McGill's attorney, Chuck Holliday.

After the proceedings attorneys representing the international Seventh Day Adventist Organization said the case is in the hands of the court.

Chartier admitted he cannot pay a fine, so if the courts decide to imprison him for contempt of court, he is ready. "If He (God) decides that it is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gospel that I should be preserved, then my life is of little consequence," said Chartier.

Attorneys said it could take days, weeks, or even months for the courts to issue sanctions for the church members who disobeyed court orders.